

# 불교유적 조사 '봄가지개'

국립·지방·대학박물관에서 불교미술, 폐사지 등 불교유적 조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조사성과물도 속속 선보이고 있다.

경기도박물관은 경기도 일대 불교 유적 및 이와 관련된 문헌사료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경기도 불적 자료집>을 발간한다. 이 자료집은 문헌으로만 전해지고 있는 불교유적과 발굴·지표조사로 새롭게 알려진 불교유적을 시·군별로 나눠 총체적으로 정리했다.

박물관이 이번 조사에서 밝혀낸 경기도 불교유적은 526개. 이중 현존하는 유적은 155개, 문헌으로만 확인된 유적은 175개, 이를테면 수 없는 사찰터 유적은 196개 조사됐다.

이 자료집에는 △유적의 명칭 △문헌의 원문·번역문 △발굴유물 등이 소개되어 있다. 또 △발굴유물의 소재지 △문화재 등록번호 △제작 연대 및 이유 등도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다.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동국여지승람> 등 주요 문헌자료 외에도 19~20세기 초에 기록된 <사찰기(寺刹記)>와 <중수기(重修記)>를 함께 게재, 방대한 불교자료를 집약한

- 경기도박물관 526개 유적정리 '불적자료집' 발간
- 광주박물관 전남 폐사지·선종계 사찰 조사
- 전주박물관 완주·진안 등 불교유적 실태조사
- 중앙박물관 은해사 소장문화재 등 집중 연구

최초의 성과물이란 평을 받고 있다.

국립광주박물관은 5월부터 전남지역 폐사지와 선종계 사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광주·전남지역 14개 시·군에서 발견된 폐사지는 총 7개. 그러나 이에 대한 조사·연구가 병행되지 않아 폐사지의 이름조차 규명하지 못했다. 따라서 박물관측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선종계 사찰에서 소장하고 있는 불상·석탑 등 불교미술품 목록 색인을 만들고, 폐사지 이름을 밝히기 위해 문헌 연구 및 재발굴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밝혀진 유물들은 박물관에 신설된 불교미술실에 전시된다. '불교유적 및 유물 조사'를 연차 사업

으로 실시해 온 국립중앙·전주박물관에서도 9·11월중 실태조사에 나선다.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조사활동을 벌여온 중앙박물관은 올해 영천 은해사 소장 문화재를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중앙박물관은 93년부터 지금까지 선암사, 내소사, 송광사, 흥국사, 선운사, 개암사 등 6개 사찰의 석탑, 불상, 탱화 등 소장 문화재를 조사했다.

전주박물관은 전주·완주·진안·무주·임실 등의 지역을 대상으로 '전북지역 불교유적조사'를 실시한다. 박물관은 지난 2년간 남원 선원사 철불좌상(보물 제422호) 등 78건에 대한 문화재 조사를 마쳐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다.



◇ 불교유적에 대한 발굴작업이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박물관의 인성 동업사지 발굴 모습.

전북대학 박물관은 5월31일까지 전북 임실군에 소재한 '임실용암리사지' 3차 발굴을 실시한다. 이 사지는 지금까지 신라시대 창건된 중기사 터로 알려졌지만, 박물관이 지난 2차 발굴에서 '진구사' 명문을 발견해 새롭게 주목받는 절터. 따라서 3차 발굴은 <삼국유사> 등 문헌연구와 추가발굴을 통해 진구사지임을 재확인하는 시간.

현재 발굴팀을 이끌고 있는 윤덕향 교수(전북대 고고학)는 "이번 발굴에서 찾아낸 유물 역시 7세기에 창건된 '진구

사'였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대학 박물관측은 이번 발굴을 계기로 사지이름을 진구사지로 바꾸고, 초석·기단·석불 등이 보존될 수 있도록 임실군에 요청할 계획이다.

국립중앙박물관 최선주학예연구사는 "박물관에서 불교유적·유물을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한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전통문화의 근간인 불교문화를 향유하고, 학자들이 풍부한 기초자료를 이용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gobacou@buddhapia.com)

## 4회 현대불교문학상 고은시인 선정 시 '묘향산' 수상작



시인이 선정됐다.

현대불교문학상 문헌상운영위원회가 추대한 심사위원회(위원장 최동호)는 고은 시인이 98년 <창작과비평> 겨울호에 발표한 시 '묘향산'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5월1일 대한출판문화협회 4층 강당에서 열린다.

현대불교문학상운영위원회는 이날 시상식과 아울러 불교시낭송회도 연다. 시낭송회에는 최화, 해관 스님 등 승려시인과 나태주씨 등 불자 시인들이 나와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하는 신작들을 낭송한다.

한편 현대불교문학은 <불교문학> 불호를 최근 발간했다. 회원들의 신작들과 제20회 만해백일장 입상작들을 묶었으며 '한국의 종교철학'을 특징으로 실었다. 임연태 기자



◇ 북어린이를 들기위한 삼소음악회가 5월8일 열린다. 사진은 리허설 장면.

### 北 어린이들기 삼소음악회 연다

불교 원불교 천주교 여성수도자들의 모임인 삼소회(三笑會)가 북한 어린이 들기 기금마련을 위한 삼소음악회를 연다.

<한겨레 한생명, 북녘 어린이에게 희망을>이란 주제로 5월8일 오후 3시와 7시 여의도 KBS홀, 120명의 비구니, 교무, 수녀들로 구성된 합창단의 '예불가' 등 합창과 이해인 수녀의 자작시 낭송, 비구수님들 각 종교 남승수도자들의 찬조출연 등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진다. (02)723-2996



거쳐 가벼운 것이 특징이다.

"수행목공예품이란 예술성과 편의성을 함께 만족해야 합니다. 그

냥 두고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행생활에서 사용해야 하니까요. 그런 점에서 불품을 상징하는 교리적 의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학림스님은 이번 전시에 연화, 촛대와 향꽃이, 염나무, 호신불, 목침, 찻상, 찻잔, 종방치 등 소품도 다수 내놓을 계획이다.

임연태 기자 (ytlm@buddhapia.com)

## 계룡산 도자예술촌 젊은 도예인 18명 수행하듯 '물레삼매'



◇ 계룡산철화분청사기 기법 재현을 위해 공동작업을 하고 있는 황성훈(사진 왼쪽) 김준성씨.

충남 공주시 반포면 상신리 계룡산 도자예술촌(촌장 이재황), 5천여명의 이 마을은 대학에서 도예를 전공한 30대에서 40대 초반의 젊은 도예인 18명이 뜻과 힘을 모아 형성한 공동체 마을. 93년 입촌 이후 여름마다 도자기 캠프를 운영하는 등 계룡산의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대부분이 불자들이 구성된 도예촌은 백제시대 사찰로 추정되고 있는 구룡사지(충청남도 기념물 제39호)와 인접해 있어 불자들에게 더욱 관심을 끈다. 부도골이라는 지명과 함께 당간지주(충남 유형문화재 제94호)와 주춧돌 부도석이 남아 있는 구룡사지는 이곳 도예인들에게 정신적 귀의처다.

계룡산 도자예술촌의 작가들에게는 공동의 화두가 있다. 계룡산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했던 철

화분청사기의 기법을 재현해 내는 것이다. 회색색의 저질태토에 귀얄로 백토분장을 하고 그 위에 철회로 자유분방한 문양을 빠른 문필을 구사하는 것이 계룡산철화분청사기의 특징. 통학사로 이르는 길목인 학봉리에 계룡산 분청사기 도요지(사적 제333호)가 있어 이곳에 산채한 도자기 파편들을 모아 재질과 문양 등을 연구하고 있다. 계룡산 도예촌은 7월 초부터 전국 각급 학교와 단체를 대상으로 도예캠프를 열 계획이다. 사찰이나 신도단체의 경우 도예 실습과 수련법회를 결합할 수 있다. 임연태 기자

### "신복선사지 고려때 조성"

하남향토사학자들 고서 토대 주장

하남시 금암산 기슭에서 사지가 발견된 신복선사는 백제시대에 조성된 것(본지 218호 7면 참조)이 아니라 고려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하남시 향토사학자들에 따르면 신복선사를 언급하고 있는 <신증동국여지승람-한산조>와 이곡의 <가정집-신복선사 중흥기>를 토대로 신복선사

창건 연대를 분석하면 고려 태종 23년(940년) 이후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

<신증동국여지승람-한산조>에는 "신복선사, 불사와 약장사는 함께 있다"고 기록돼 있다. <가정집-신복선사 중흥기>에는 "신복선사는 관주에 있고, 신복선사 창건은 관주와 함께 일어났다"며 창건 시기가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신복선사의 창건 연대도 940년 이후로 보아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세종대학교 박물관은 "기초조사가 끝나는데도 발굴을 통해 신복선사의 역사를 정확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 불교전통수행목공예품전 여는 학림스님

## 육환장 108개 한정제작 전시

"부처님은 나무아래서 태어나 나무아래서 깨달음을 얻으셨으며 나무아래서 열반하셨습니다. 교화안거의 장소도 나무아래였습니다. 부처님의 일생이 나무 아래서 이어졌듯 수행자들은 나무와 밀접한 생활을 해 왔습니다."

육환장과 주장자를 비롯 수행자들의 생활에 널리 쓰인 목공예품들을 손수 제작해 온 학림스님(예전 법화암주지)이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불교전통수행목공예품 전시회를 연다. 5월 2일부터 11일까지 안국동 로타리 옹전

갤러리.

"무우수의 세존, 그 지혜로"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고려불화를 재현한 육환장이 선 보인다. 나무로 몸체를 만들고 청동재로 머리부분의 문양을 만든 육환장은 장엄미가 돋보이며 움직일 때마다 맑은 소리가 난다. 스님은 육환장을 108개만 만들었다.

육환장과 함께 선보일 석장과 주장자는 소백산에서 채취된 나무의 원형을 자연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3년간의 건조과정을

## 한형조 교수의 한글 세대를 위한 선(禪)불교 강의

# 오늘의 언어로 열어 보이는 本地風光

### 언어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선(禪)의 세계

- 최근 출판가엔 가히 한국판 선의 황금시대라 할 만큼 관련 서적이 다수 출판됐지만, 이처럼 원문의 맛을 살리는 것에 더해 탁월한 문학적 향취까지 풍기는 책은 흔치 않다. (문화일보 김종락 기자)
- 불립문자(不立文字)의 선을 언어를 통해 그 본질을 소개했다. 이제까지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람과 사회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나 자신까지 해체해 '있는 그대로' 보라고 말하고 있다. (동아일보 이광표 기자)
- 선(禪)의 역사와 이념, 방법과 한계뿐 아니라 궁극적인 몸음, '너는 누구냐'는데 답하기 위한 준비에 충분히 감당할 책이다. (한국일보 정병욱 기자)
- 선불교의 진면목을 간단명료하게 보여 주는 화두집인 『무문관(無門關)』을 번역 해제한 이 책은, 동양적 혹은 불교적 세계관에서의 자아찾기 과정을 제시한다. (세계일보 이준수 기자)
- 이 책은 언어라는 도구를 사용해 현대인들을 선의 세계로 초대한다. .... 달마라는 페르시아 승려에게서 출법한 선(禪)이 6조 혜능에 이르러 기반과 동력을 얻기까지의 역사와 이념, 방법과 한계를 읽고 있다. (시사저널 성우재 기자)

한형조 지음/ 86 변형 334쪽 / 값 6,000원